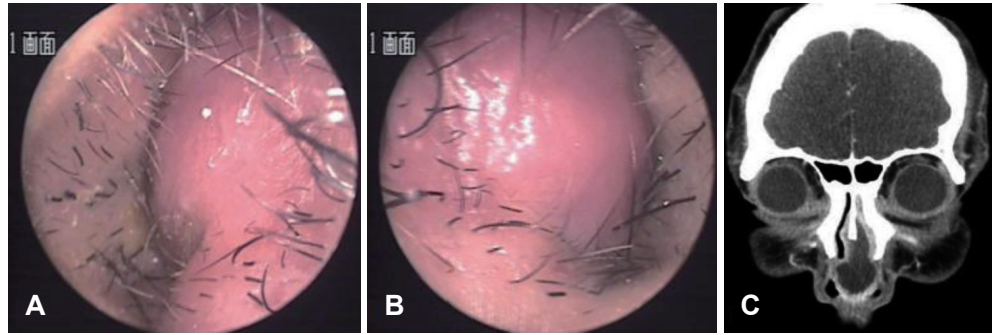


비중격 수술을 시행한 45세 남자 환자가 24시간 후 비강 내 팩킹을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비폐색, 전두통 및 압박감을 호소하였다. 아래 그림은 환자의 비강 내 내시경 소견(Fig. A and B)과 CT 사진(Fig. C)이다. 이 질환의 치료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?



- ① 최선의 치료법은 외과적인 배액으로 조기에 배액을 시행하지 않으면 연골의 괴사로 인한 외비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다.
- ② 작은 혈종의 경우는 반복하여 혈액을 흡인 제거하면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.
- ③ 큰 혈종의 경우는 빠른 혈종 제거를 위해서 연골을 통한 양면 절개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④ 비중격 성형술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 절개를 가한 부위를 다시 개방하고 혈액을 제거할 수 있다.
- ⑤ 혈액을 제거한 후에는 혈액이 다시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비중격 점막을 탐폰으로 압박하고 24시간 후에 제거한다.

정답 및 해설은 395쪽에  
게재되어 있습니다.